

‘조선불교유신론’ 100년-10. 만해와 오늘의 불교

‘유신론’ 필요 없는 절집을 세울 때다

만해 스님(1879~1944)이 치밀하고 명쾌한 논리로 당시 불교계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명저인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낸 지 어언 100년이 됐다. 10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국불교는 영육이 교차했다. 조계사 마당에 섰다. 육중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아래 서울한강선원 전막이 펼쳐져 있는데 양자의 거리는 꽤 멀어 보인다. 지금 한국불교는 위기와 도전의 극점에 있다. 정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모와 압박을 받았고 봉은사와 4대강문제로 갈라져 있으며, 상좌불교가 대중 사이에 파고들며 대중의 전통에 틈을 내고, 대중을 이끌고 구제할 스님조차 상당수가 권력과 시장과 욕망에 물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만해 스님은 불법에 귀의한 승려이자 근대적 개혁을 실천한 계몽적 지식인이다. 그러기에 <조선불교유신론>은 불교적 세계관과 비불교적 세계관, 중세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가 적종돼 있다. 비구로서 스님은 중도의 사유를 행하고 언어와 의식을 넘어서는 진여를 추구했다. 이렇듯 경유 일체의 만행이나 당시 불교계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 이에 스님은 진여문(眞如門)에서는 불법과 일심(一心)을 따르지만, 생멸문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입장을 취했다. 선(禪)이 언어도단(言語道斷)을 선언하면서도 언어로 된 화두를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거시적 차원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을 지향하면서도 불교 개혁의 방편으로 이분법의 사유, 진리의 확정성과 합리성, 인간중심주의 등 근대적 사유와 실천을 혼용한 것이 <조선불교유신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기서 주장한 개혁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지금도 현재성을 갖는다.

만해 스님은 선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선객이 호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그런 선실도, 스님도 없기에 얼핏 보면 이 지적은 현재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해 스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절의 시장화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절집은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돼 신자유주의 이래 시장에 편입됐다. 절집 일들이 자본의 확대재생산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신도는 물론 상당수 스님 또한 화폐중심의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 상황은 불교에 위기가자 도전이다. 한국 불교가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타자를 섬기어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선도한다면, 인류가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종교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절집도 시장에 포섭될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승려 교육에서 “지혜, 사상의 자유, 진리의 세 요소가 중요하며 스님들은 그 중에서도 사상의 자유와 비판정신이 가장 결핍돼 있으니 보통화, 사법화, 외국유학 등으로 이 문



성남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에 진열된 만해 스님의 저서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자유주의 편입된 상황은 위기가자 도전이다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게 문제

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점은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와 여러 강원이 있어 만해 스님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스님들 상당수는 한문공부를 하다가 간화선 수행으로 비약을 한다. 이 때문에 스님들 중에는 교리에 약하고 현대 사회와 대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지는 화폐중심의 욕망에 물들고 소외를 겪으며 모두가 고독하고 불안한 가운데 자살에까지 이르는데 스님들이 고지식인 고(苦)의 지멸만 되풀이한다면, 대중들은 차츰 절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의 교과과정에 현대사회와 대중을 이해할 수 있는 서양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대폭 포함시켜야 하며, 교(敎)를 사다리 삼아 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전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리라.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불교방송국 등 많은 불교 언론이 존재하고 불교 책자도 쏟아져 나온다. 여건은 충분하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문제는 한국불교가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저 높은 곳에서는 불교교리와 간화선 수행을 정통으로 말해

주면서, 낮은 곳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도 포용하고 대중의 근기에 맞추어 불교교리와 의례를 현대화, 대중화해야 하며, 자비행과 보살행을 관념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리라.

무엇보다 문제는 스님과 종단이다. 스님들이 너무 쉽게 계율을 어긴다. 육식과 술을 하지 않는 스님들을 보기가 외려 어렵다. 출가를 했더라도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세속과 너무 깊이 연결돼 있다. 종단은 점점 더 관료화하고 있어 불자들이 거리가 멀다. 스님만 나무랄 수 없다. 인터넷 접속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요지경 세상에 폭 빠질 수 있다. 인터넷은 공동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이제 달라진 맥락에 맞게 계율도 현대화하고 재가불자도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하며 종단도 개혁해야 하리라.

<조선불교유신론>이 100년 뒤 오늘까지 지표임은 그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무도 <조선불교유신론>을 말하지 않도록 절집을 새로 지을 때다.



이도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①

사찰은 중생 위한 수행·포교의 장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단체로서 사찰경영은 무엇을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불도를 닦고 교법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경영이라고 하면 영리추구를 위한 활동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찰을 경영한다고 하면 사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기인하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經營)의 원래 의미는 사업이나 기업 등의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활동이다.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쓰인 조직은 가계, 기업, 기관 또는 사찰, 교회 등 다른 어떤 조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찰·교회·학교·병원·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주 식회사와 같은 영리적 경제단위를 경영한다는 것은 각기 이들 경영체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어 오늘날에는 주로 기업 경영을 의미하게 되면서 혹자와 같은 오해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로서 사찰경영은 무엇을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찰(寺刹)에 대한 정의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찰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곳을 목적에 맞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사전적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佛道)를 닦는 수행 도량이자 불법(佛法)을 널리 퍼서 중생을 제도하는 포교의 장이다. 가람(伽藍)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범어의 상가라마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이는 중원(中院) 또는 정사(精舍)라는 뜻으로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등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를 정리하면, 사찰은 사부대중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경영은 불도를 닦고(수행) 교법을 전하기 위한(포교) 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앞에서 사찰경영의 목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찰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찰경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는 누구인가?

불교를 가리켜 수행의 종교라고 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한다.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생이 무명에 가려져 이를 보지 못하기에 수행으로 무명을 걷어내어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생(衆生)의 범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有情物)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無情物)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곤충이나 미물(微物)들까지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중생을 인간에 한정시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불성관과 수행관에 의했을 때, 수행을 하는 자와 수행을 받는 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수행이

란 본디 자발적·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자’는 있어도 ‘받는 자’란 수행의 본 의미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불성은 일체 중생에 깃들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행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교(布教)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토를 일구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한다.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생이 무명에 가려져 이를 보지 못하기에 수행으로 무명을 걷어내어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생(衆生)의 범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有情物)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無情物)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곤충이나 미물(微物)들까지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중생을 인간에 한정시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불성관과 수행관에 의했을 때, 수행을 하는 자와 수행을 받는 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수행이

란 본디 자발적·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자’는 있어도 ‘받는 자’란 수행의 본 의미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불성은 일체 중생에 깃들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행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교(布教)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토를 일구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포교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윤택하게 하는 것

한다.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요체로 한다. 그리고 불교는 각자 자신의 능력과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 정진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행법은 다양하나 모든 수행법은 한결 같이 바른 깨달음 즉, 성불(成佛)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성불은 자신을 윤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한 상태, 즉 붓다(Buddha, 깨달은 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 개인이 본래 구족한 본성(本性)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본성은 곧 정의를 수(性)라고 한다.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일

3박 4일 대용맹정진

1,000명의 대중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참선 대도량 해운정사

부처님의 정법맥을 이으신 진제 대선사께서 직접 바른 참선법을 지도하시는 거룩한 행사에, 참선에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해운정사에 만년위패로 조상영가를 모시면 절 역사와 함께 1년에 3번씩 합동제사를 올립니다.
 설날(음.1) / 추석(음.8.15) / 중앙절(음.9.9)

진제 대선사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5대 일간지와외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을 향해 던진 깨달음의 메시지! 참나를 찾는 참선 정진으로 맑은 지혜를 깨달아 내고 날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대안 락에 이르는 최상승 화두 참선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 국민 필독서!!
 신국판 / 348면 / 매일경제신문사 / 15,000원 / 전국서점 철찬판매중

3박4일 대용맹정진

- 입 재 : 10월 22일 (음.9.15)(금) 오전 10시
- 회 향 : 10월 25일 (음.9.18)(월) 오전 11시 (회향 직후 재가오계수계식 봉행)
- 동참금 : 4만원 (스님은 무료)
- ※ 1,000명 선착순 마감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재가오계수계식

- 일 시 : 10월 25일 (음.9.18)(월) 오전 11시
- 동참금 : 1만원 (불명 신청받습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해운정사** 주지 지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해운대역 뒤편 5분 거리)
 문의전화 051) 746-2256, 744-4812
 팩 스 051) 741-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